

---

# MiJa

By Mark Atkinson

---

## 목호, 1960년 2월 29일



은둔하기에 목호는 최적의 장소이다, 오징어를 말리는 퀴퀴한 냄새가 당신의 삶에 배어들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한반도 남쪽 동해안을 상항하는 완행열차를 타고 가다가 종착역에 닿으면 오른쪽으로 난 바다를 향해 2km정도 걷는다, 그러다보면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 비무장 접경지역이라 방문객이 많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방랑 중이거나 도피 중인 것이리라. 나도 이 경로를 따라 이곳에 왔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1954년 여름이었다.

내 기억 속 그 어떤 겨울보다 혹독한 이 겨울,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실은 나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암담한 절망에 빠뜨렸지만 나는 어떻게든 견디고 있었다. 외출을 하는 건 끔찍하게도 싫은 일이지만 지금의 내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남은 연탄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까물댄다. 시장엘 다녀오든지 그냥 얼어죽든지 둘중 하나였다. 아들을 들쳐 업고 포대기로 단단히 묶은 나는, 비닐장판 아래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을 꺼내 놓고 잠시 바라보다가 꼭 손아귀에 움켜쥐었다. 수일 내에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막막했다. 허름한 그의 외투는 그가 무심히 걸쳐둔 그 자리에 여전히 걸려있다. 나는 그것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단추를 턱 밑에 바짝 채웠다. 아직도 그의 냄새가 났다.

시장이 원래 이렇게 멀었으나, 분명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칼춤을 추는 듯 날카롭게 휘몰아치는 매서운 추위 탓인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쳐박혀 있었던 내 탓인가. 몸둥이 구석구석을 더듬어대는 듯한 얼음손처럼 차가운 바람을 막으려 나는 낡아빠진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었다. 마침내 도착한, 시장이란 원래 북적이는 곳이다. 제철을 만난 군밤과 번데기와 떡같은 것을 파는 장사꾼들이 앞을 다투어가

며 제것을 사라고 코 앞까지 들이밀며 소리를 질러댄다. 족발, 순대, 국밥 등이 끓고 있는 곤로 위의 커다란 냄비들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희뿌연 김엔 마늘과 생강, 계피같은 게 뒤섞인 향과,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과 흥정을 하는 손님들의 입김이 더해져 시장의 공기를 빈틈없이 배우고 있었다. 호시절이 생각날만큼 코를 자극하는 냄새에 배도 꼬르륵대며 요동을 쳤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연탄 장수에게로 향했다.

“아줌마, 운수 좋은 날이요.” 장사꾼이 소리쳤다. 나는 흠칫 놀랐다. 그의 앞에 쌓여있는 연탄들만큼 그는 시커먼 먼지투성이였다. 게다가 운수 좋은 날이라, 남편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애는 맥여야 하는 나에게 아무렴 그렇겠지. 야속한 세월, 불과 얼마전까지도 한창의 아가씨였던것 같은데 아줌마라니, 어느새 걸넘어버린 어미라니, 이제 고작 서른 셋일 뿐인데...그러나 더 참을 수 없는 건 나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그가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아줌마에겐 특별히 10장에 45환만 받을라오, 판매선 이 정도 품질의 연탄을 이 가격엔 절대로 못 사서, 자 몇장이나 드릴까?” 연탄 장수가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을 하며 물었다.

“아저씨, 싸구려 중국산 같은데요, 아니에요?” 연탄에 난 구멍들을 살펴보며 내가 되물었다.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바로 여기 이 고장에서 캔 최상급 석탄으로 만든 연탄이라니까.” 장사치가 심한 모욕을 당한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것도 녹녹한데요, 저번에 산 것도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서질 듯해서 겨우겨우 모시듯 들고가 한참을 말려서는 불 붙여 놓았더니 타는 등 마는 등 별로 뜨겁지도 않더니 금새 잿덩이가 되었어요.”

“예예, 안녕히 가쇼, 아줌마 아니라도 살 사람 널렀다오.”

“6장에 20환 드릴게요.”

“아줌마, 늙더니 귀도 멀었소? 아니면 벌써 치매가 왔나? 내 방금 10장에 45환이라 했는데...”

“아이고 아저씨, 혹시 날강도라도 만날까봐 집에서 20환만 가져왔는데 보아하니 그러길 잘했네요.”

“그 가격에 팔면 우리 애들은 굶어 죽어요, 4장에 15환. 가져가던 말던 맘대로 하쇼, 더이상은 안돼요.” 연탄 장수가 어의없는 듯 웃었다.

“그게 이 늙고 가난한 아줌마에게만 주는 특별가라 하니 사야겠죠 그럼.” 나는 돈을 건네었다.

우린 서로 나에게겐 선택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차피 4장 이상의 연탄을 애기까지 업은 내가 집까지 들고 가는 것도 무리였다.

장사꾼은 연탄에 난 구멍을 맞춰 두장씩 쌓은 후 새끼줄을 정중앙 구멍에 밀어 넣더니 밑장의 연탄구멍 끝에 단단히 매듭을 짓고 들고 가기 좋도록 손고리를 만든 후 내 양손에 한 묶음씩 끼워 주었다. 나는 비틀대지 않으려고 애쓰며 해녀들이 있을 곳으로 갔다. 소라와 전복을 따고 문어라도 건지는 날은 숨비소리가 노랫가락이 되는, 물질을 하며 살아가는 바다의 여자들, 해녀. 그들은 내가 묵호에 온 첫날부터 그들의 그늘 안으로 나를 품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은혜를 결코 갚을 수 없으리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염치없는 나는, 오늘 그들이 물질 해온 것들을 다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떨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걸어가고 있었다.

초저녁 한기를 녹이려 화로를 둘러싸고 모여있는 그들이 보였다. 고생에 찌들어 쭈글쭈글해진 거죽을 걸친 그들의 얼굴이 숯불에 벌겋게 달아올라 번들거렸다. 얼굴엔 거짓이 없다; 살아온 삶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난다. 무리에서 한명이 빠져 나오더니 부두를 따라 줄을 세운 듯 길게 늘어선 검붉은 고무통에 바닷물을 끼었다 말고 소리쳤다.

“형님들, 여기 좀 봐요 누가 왔나.” 해녀들이 손을 흔들며 반겼다. 어찌다보니 남편들보다 훨씬 더 명줄이 길어져버린 대부분은 육, 칠십이 훌쩍 넘은 할머니들이었다. 수십년을 물질을 하며 살아온 그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전설과도 같은 것이었다. 선상 작업을 선호하는 어부들에 의하면, 상어들조차 그들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얼른, 이리 나오.” 우두머리격의 대장 해녀가 내게 손을 뻗으며 말했다.

“애가 잠이 들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길을 만류하며 말했다.

“이리 달래두, 넌 좀 쉬어, 지쳐 보인다.” 대장 해녀는 나와 아들을 하나로 꿩꿩 묶은 포대기를 풀어 헤치고 내 등에서 잠든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선 화로로 데려갔다. 화롯불 위에서 끓고 있는 생선찌개의 냄새가 구수했다. 아직도 잠수복을 반쯤 걸친 해녀가 쪼그려 앉더니 재빨리 발버둥치는 장어 한마리를 잡아 채선 커다란 나무도마 끝에 박혀있는 대못에 장어의 머리를 박아 넣더니 그 껍질을 산채로 주욱 벗겼다. 회칼을 집어들고 한 입 크기로 썬 후 여전히 꿈틀대는 분홍빛이 도는 장어살을 석쇠에 넣어 숯불 위에 올려 놓았다. 지글지글 장어 굽는 소리와 냄새에 군침이 돈 나는 숨을 깊게 들이 마셨다.

“남은 활어 있어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난 실없이 물었다.

“별써 다 팔렸지, 이 시간까지 남아있을리가 있나.” 해녀들도 실없이 웃었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버린 아들이 짹짹대기 시작했다. 대장 해녀는 벌건 숯불 사이를 헤집고 검게 그을린 고구마 하나를 찾아내서는 껍질을 맨손으로 벗겨낸 다음 조그맣게 뜯어낸 속살을 아이에게 먹이기 좋을만큼 식히려 후후 불어댔다.

“우리랑 저녁 먹고 가, 다같이 먹고도 남을만큼 충분해,” 잠수복을 걸친 해녀가 생선찌개 냄비를 향해 고개짓을 하며 말했다.

“그러면 좋겠지만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해요, 게다가 남편이 오늘은 틀림없이 돌아올거예요. 그러니, 뭐든 5환어치만 주실래요?” 더이상 폐를 끼치긴 싫었다.

해녀 한명이 비닐봉투에 빨소라를 듬뿍 퍼 담았다.

“너무 많아요.” 나는 그들의 관대함에 겸연쩍었다.

“몸은 어때? 회복이 좀 되었어?”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다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됐어 그만해, 설명하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무슨...” 해녀들이 정색했다.

“죄송해요, 그런데 이젠 정말 가 봐야겠어요. 조만간 꼭 다시 올게요.” 난 꾸벅 인사를 했다.

아들을 다시 업고 잠시 바닥에 내려 놓았던 연탄뭉치의 고리를 양손에 끼우며 집으로 갈 채비를 하다 나는 대장 해녀가 빨소라가 든 비닐봉투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큰 광어 한마리를 슬쩍 밀어넣는 것을 보았다. 내게로 다가온 대장 해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포대기 앞가슴 끈에 매달아 주었다. 비닐봉투 안에서 미친듯이 퍼덕이는 광어처럼 내 가슴도 미친듯이 펄떡였다.

“조심히 가, 집에 가면 니서방이 기다리고 있을거야.” 발걸음을 떼는 내 귀에 그녀가 속삭였다.

“수일 내에 꼭 다시 와.” 그들이 당부했다.

“그렇게요.” 대답은 했지만 그러긴 힘들거였다, 풍둔이라도 생기면 모를까. 건다가 뒤돌아 본 항구엔 깜박 깜박 켜지기 시작한 전깃불이 부두 주변에 들어서있는 주홍빛 포장마차들로 은은히 번져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부쩍 가깝게 느껴졌다. 뾰드득 눈을 밟는 내 발자국 소리 너머로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가슴팍에서 퍼덕이며 발악을 하던 광어가 마침내 조용해진 후에야 내 마음 한편은 저러오기 시작했다. 대장 해녀가 자신의 저녁거리로 아껴두었던 광어를 내게 내준 것이란 생각이 그제야 들었기 때문이다. 정말 운수 대통하는 날인걸까? 어쩌면 연탄 장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집에 가면 남편이 꼭 돌아와 있을것만 같았다. 싱싱하니 회를 뜰까 아니면 연탄불도 있으니 생선찌개를 끓일까, 그가 늘 좋아하던 것들이니...

집에 도착할 무렵엔, 뚝 떨어진 기온과 찬바람에 연탄을 들고 오느라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던 두손은 뽀뽀 얼어있었고, 무서운 기세의 폭설이 어둠속에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어둡다 한들 제 집을 못 알아볼까... 한때는 번듯한 초가였겠으나 현재는 녹이 슬어버린 양철지붕을 하고 거친 벽돌이 이리저리 드러나서 볼품 없어진 오두막, 밤하늘에선 그래도 제법 독특한 윤곽으로 그려지는 집...아직도 방엔 불이 켜지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조심히 연탄을 내려놓고 나니 대문 앞에 놓인 허름한 천에 싸인 뭔가가 눈에 띄었다. 휘갈겨 쓴 듯한 글씨의 쪽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1960년 2월 29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그것을 대문 앞에 그대로 내버려두기로 했다.

그 꾸러미를 보고 난 후 입맛이 없어진 나는 광어와 빨소라들을 살얼음이 낀 찬물통에 쏟아넣고 아궁이에 연탄을 갈았다. 머리가 빙빙 도는 듯 어지러웠다. 어떻게 하지? 이웃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나,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그 꾸러미를 들여와 방구석에 두고선 금이 간 벽에 쑤셔넣었던 누더기들을 뽑아내었다. 곧장 시리도록 찬바람이 휘휘 새어 들어왔다. 이만하면 충분히 서늘하리라.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요때기 밑으로 기어들어가 따듯해진 방바닥에 최대한 몸을 밀착시켰다. 자다가 깨 한 두 번 뒤척이던 아들은 젓꼭지를 물려 토닥이니 곧 다시 잠에 들었지만 내 간절함과 달리 난 잠들지 못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내 마음은 뒤죽박죽이었고 간혹 졸릴라치면 양심이 가시에 찢려 호다닥 잠에서 깨기 일수였다. 배신 당하고 버림받은 처량함에 짝조름한 눈물이 소리없는 흐느낌을 타고 흘러 내렸다. 분노에 사로잡힌 나는 때때로 요 밖으로 발을 내밀고 그것을 더 외풍이 심한 쪽으로 밀어놓곤했다.

그렇리아 없겠지만 아니 그러길 바랬지만, 영원히 밝아 오지 않을 것 같던 아침이 마침내 밝아 온,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어느새 잠이 든 걸까. 깨어 보니 천지가 조용하다. 밤새 내린 눈이 새하얀 담요를 펼친 듯 세상을 뒤덮어버렸고 인류의 모든 소음 또한 삼켜버린 듯 적막했다. 섬뜩하게 환한 아침, 겁에 질린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한 채로 귀만 쫓긋 세웠다. 잔잔히 코를 고는 아들의 숨소리와 딱딱한 방바닥에 쿵광대며 울려퍼지는 내 심장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서늘한 방구석에 밀쳐두었던 꾸러미에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찌소리도 없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잘 된 일인거야. 성공했어. 어차피 벌어진 일인 걸 이제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걸. 꾸러미에 싸여 있던 갓난 아이는 밤사이 얼어죽은 게 분명했다.

마크 앳킨슨

영국, 요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에서 학업 및 직장생활을 하였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10여년을 살았다. 첫소설 '미자'는 4년에 걸친 조사와 연구 끝에 집필되었다.

한글 번역본 다운 및 작가탐구를 할 수 있는 북클럽 가입 링크  
[www.bookmark-publications.com](http://www.bookmark-publications.com)

작가의 이메일 주소  
[mark@bookmark-publications.com](mailto:mark@bookmark-publications.com)

